

부직포 막덮기를 이용한 고추 재배기술 경영성과 분석

기세현*, 진성용*, 양진호*, 최윤희*, 고연실*, 정성훈*, 최초룡*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e-mail: gus132301@korea.kr

Economic Analysis of Pepper Cultivation Technology Using Nonwoven(illite) Covering

Se-Hyun Gi*, Sung-Yong Jin*, Jin-Ho Yang*, Yun-Hee Choi*, Yeon-Sil Ko*,
Seong-Hoon Jeong*, Cho-Rong Choi*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노지 고추 재배에 있어서 정식기와 생육 초기에 해당하는 4월 말, 5월 초의 평균기온은 고추의 생육적인 24-28℃보다 낮아 생육 초기 활착 및 생육 불량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이상기후로 냉해, 동해 등에 따른 예방과 대책이 노지작물 재배 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는 노지에서 조기 정식을 할 경우 대부분 PE 필름을 이용한 터널 피복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낮의 고온장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복자재에 구멍을 뚫어 통풍구를 만들어 주어 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기 방법의 적용은 농가 경험에 달려있어 생산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된다. 비닐터널을 이용한 고추 재배시 생육초기 구멍뚫기, 통풍구 내기뿐만 아니라 지주 꽃기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비닐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여름철 과습에 의한 병해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와 노동력 절감을 해결하기 위한 재배법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부직포 터널 재배 시 PE 비닐대비 진딧물 발생주율은 62% 정도 감소되었으며 유기재배에서 수량이 238kg/10a로 28% 증수되었으며 막덮기 부직포를 이용한 고추 터널 재배 시 4월 하순 정식 후 6월 중순에 피복을 제거하면 PE 비닐 터널재배에 비하여 진딧물 발생이 88.2~91.8%로 감소하며 수량은 약 11~14% 증수된다.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는 조기정식으로 장마기 이전 수확량 증대가 가능하며 우박과 냉해, 저온 및 고온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환기구 구멍을 뚫지 않아도 환기가 가능하며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해충 방제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다.

고추 부직포 막덮기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피복자재인 부직포를 다년간 사용할 경우 오염으로 인한 광 투과가 저하되어 일조량 부족으로 고추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2~3년 단위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부직포 막덮기 경우 병충해 발생 감소를 위한 덮개 제거 즉시 약제를 살포해 주어야 하며 포장 경운 시 토양 살충제(진딧물, 총채벌레 등) 혼합하여 방제해야 한다.

소득분석 결과 고추 부직포 활용 막덮기 도입 농가의 유용성 조사 결과 수량 증가와 품질 향상이 4.2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소득 증가와 기술 지원 부분에서 4.2점으로 높았다. 고추 부직포 막덮기 도입 농가의 경우 소득은 6,774,650원, 미도입 농가의 소득은 4,161,491원으로 부직포로 인해 재료가 상승하였으나 총수량의 증가와 농약비 절감으로 소득은 21.8%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고추 부직포 활용 막덮기를 이용한 고추 재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T. 063-290-6123, F. 063-290-6095 gus132301@korea.kr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67012022)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024 춘계